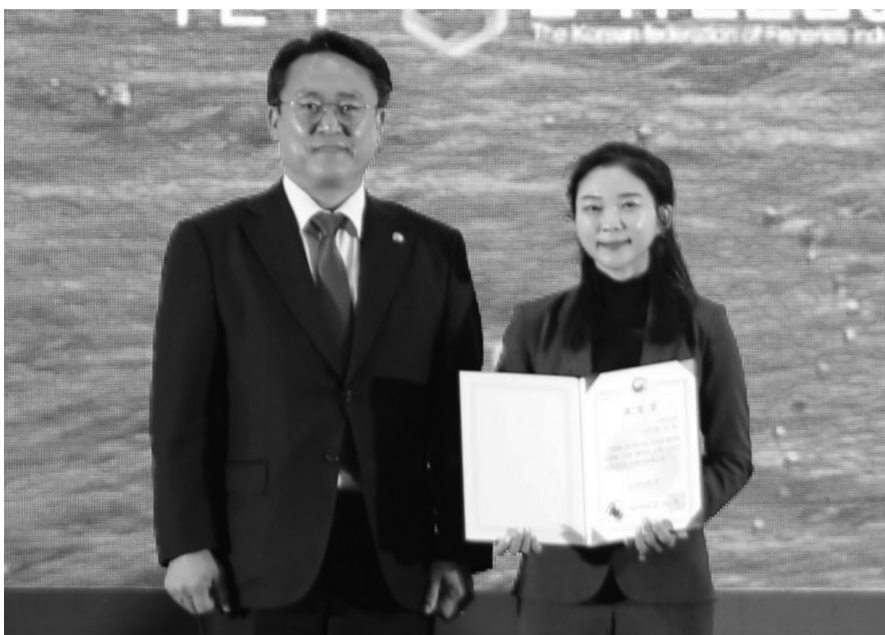


# 보해 임지선 대표 '수산인의 날' 해수부 장관 표창

‘청정’ 완도서 제13회 기념식 열려  
금일수협과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  
수산물 소비 촉진 선진사례 선정  
이달말 출시...“지역상생·경제 기여”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왼쪽)과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이사(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류전문기업 보해양조 임지선 대표이사 지역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7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완도군 청해진스포츠클럽에서 열린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보해양조가 완도금일수협과 맺은 다시마 소주 개발 협약(MOU)이 기업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선진사례로 인정 받아 수여됐다.

완도군은 해조류 등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며 미래 해양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행사 개최 후보지 공모, 현지 조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지로

결정됐다. 완도군 금일읍은 일조량과 바람 등 다

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춰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다.

보해양조는 광주·전남지역 대표 기업으로써 이러한 지역 특성과 높은 품질의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 레시피 개발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완도군, 완도금일수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다시마 소주 브랜드의 시장 안착을 위한 네트워크 협조 및 홍보·마케팅,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해조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보해양조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다시마를 활용한 소주는 해조류 수산물의 활용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특별한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해양조 다시마 소주(가칭)는 오는 4월 말 완도군에서 우선 출시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전남의 대표 특산

물인 신선 토판염으로 쓴 맛을 잡은 보해의 대표 제품 보해소주에 이어 청정 완도 다시마의 감칠맛이 구현된 소주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며 “보해는 앞으로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해양조는 1950년 창업자 고 임광행 회장이 설립한 74년 전통의 주류전문회사로 국내 주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세계 3대 소금을 넣어 쓴맛을 잡고 풍미를 더한 ‘보해소주’, 최상급 복분자만을 사용하여 맛이 깊고 진한 ‘보해 복분자주’, 해남 보해 매실농원에서 직접 생산한 청매실로 빚어 맛이 순하고 깨끗한 ‘매취순’, 저온살균 공법으로 신선한 맛을 오랫동안 균일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순히 막걸리’, 소다맛에 탄산을 더해 청량감과 달콤함이 특징인 ‘부라더 소다’ 등이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 삼성전자, 유로쿠치나서 AI 가전·빌트인 공개

AI·스마트싱스로 주방 혁신 제시

삼성전자가 16일부터 21일까지(현지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유로쿠치나(EuroCucina) 2024’에서 AI 가전과 유럽 특화 빌트인 제품을 선보였다.

1974년 처음 개최된 유로쿠치나는 2년마다 밀라노 디자인위크의 일환으로 열리는 주방 가전·가구 전시회로, 주방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삼성전자는 유로쿠치나 전시장에 참가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964㎡(약 292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해, 2024년형 비스포크 AI와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AI 기술이 접목된 주방 혁신으로 전시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멀티 디바이스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제품들을 통해 새로운 주방의 모습을 제시했다.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에는 32형 터치스크린이 탑재돼, 주방에서도 콘텐츠를 시청하고 삼성푸드에 저장된 레시피를 불러올 수 있다. 또,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가 들어가고 나가는 순간을 인식해 식재료 리스트를 만들고, 보관기한 임박 시 알림을 전달해주는 ‘AI 비전 인사이트’ 기능도 유용하다.

‘애니플레이스 인덕션’에도 7형 터치스크린 ‘AI홈’이 탑재돼, 기호에 맞는 레시



피를 추천 받아 이를 보면서 요리를 하거나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다른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유럽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실제 집안처럼 체험존을 구성하고, AI 홈과 빅스비를 통해 연결 기기들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스마트싱스에서 주거 공간의 가상 도면을 보면서 연결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맵뷰’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애니플레이스 인덕션과 비스포크 AI 콤보에 탑재된 AI 홈과 스마트 TV 화면에도 띄워서 볼 수 있다.

유럽 빌트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프리미엄 빌트인 신제품도 전시했다.

이달 유럽에서 출시한 ‘빌트인 와이드(Wide) BMF(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삼성전자의 빌트인 냉장고 라인업 중 최초의 와이드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고급스런 소재의 빌트인 오븐, 아일랜드 식탁과 일체화되는 빌트인 인덕션도 공개하며 프리미엄 소재와 톤이 돋보이는 빌트인 키친 패키지를 제시했다.

최권범 기자

## 목포 슈니테크, 김 종자 양식 ‘배양 필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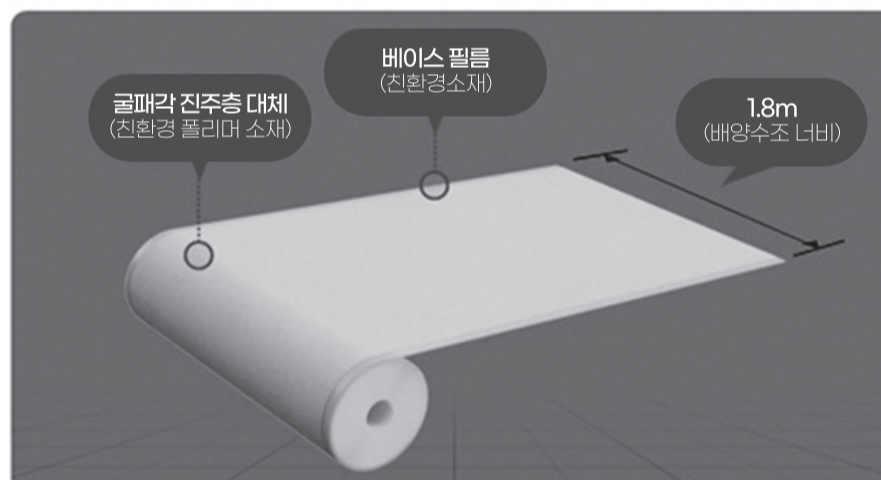
2억원 규모 시드 투자 유치  
중국산 굴 패각 문제 해결

목포의 한 수산양식기술 전문기업이 김 종자 양식을 위한 필름 형태의 배양 제품을 개발해 2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17일 슈니테크에 따르면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 운용사인 ㈜기술리벤처스로부터 2억원 규모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슈니테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김 종자 양식에 쓰였던 중국산 굴 패각의 균일하지 못한 크기나 모양, 무거운 무게로 인한 인건비·운송비 증가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배양 필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슈니테크는 중국산 굴 패각 문제를 해결하면서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굴 패각 무게의 2% 수준인 필름 형태의 제품을 개발했다. 배양 필름은 기존의 굴 패각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무게가 아닌 표준화된 면적 단위로 판매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 배양 필름 사용 시 설치 및 출하, 채묘 과정이 간소화된

▶ 굴패각 대체품 ‘SAC(종자 인공배양)에코 필름’



목포 소재 수산양식기술 전문기업인 슈니테크가 최근 김 종자 양식 배양 필름을 개발했다. 사진은 배양 필름.

슈니테크 제공

다. 유동현 기술리벤처스 투자이사는 “전 세계적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있는 김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식의 표준화가 요구되며 배양 필름이 이러한 김 산업 표준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양 필름은 6조원 규모의

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슈니테크는 설립 후 1년여 동안 특허 출원 및 등록을 각각 1건, 5건 진행했으며 특히 김 종자 배양 필름과 관련된 핵심 특허를 해외에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을 완료했다.

박소영 기자

## 광주은행 KJ카드, 가정의 달 이벤트 마련

5월 31일까지

광주은행은 오는 5월31일까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5(월)! Happy Day 가정의달 Event’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응모가 필수이며, 추첨을 통해 △통합외식상품권(5만원) △신세계(이마트) 모바일쿠폰(5만원) △롯데 모바일쿠폰(3만원) △배달의민족 모바일상품권(3만원) △GS칼텍스&GS편의점 모바일상품권(3만원)을 제공하고 이벤트 간 중복추첨도 가능하다.

‘패밀리데이 광주카드와 함께!’는 기간 내 개인신용카드로 합산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0명에게 통

합외식상품권(5만원)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우리의 스페셜데이는?’은 기간 내 개인신용카드로 스페셜데이(어린이날·대체공휴일·어버이날·스승의날·성년의날·부부의날) 합산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20명에게 신세계(이마트) 모바일상품권(5만원)을 제공한다.

‘정했다! 함께 가고 싶었던 그곳!’은 기간 내 여행(항공사·면세점·관광여행)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롯데 모바일상품권(3만원)을 제공한다.

‘의미있는 선물로 감동주기!’는 기간 내 쇼핑(백화점·대형마트)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배달의민족 모바일상품권(3만원)을 제공한다.

‘달디달고 달디단 분위기의 식사약속!’은 기간 내 음식(음식점·카페)업종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GS칼텍스 또는 GS편의점 모바일상품권(3만원)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는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광주와뱅크(APP), 모바일웹뱅킹, 인스타그램(@kj\_card), 카카오톡(광주은행 KJ Card), 페이스북(KJ Card), 고객센터를 통해 응모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J카드 헬프센터(1577-3650)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2일 금융경제강좌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2일 오후 3시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올 상반기 금융경제강좌 2회차 강의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유종민 교수가 ‘기후변화·탄소중립, 시장 경제를 말하다’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유종민 교수는 현재 환경부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 위원으로,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뉴딜실

무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기후 변화 정책 전반 및 녹색금융 등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번 강의를 포함해 올 상반기 중 총 4회, 하반기 중 4회의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무료로 참가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